

조선

이제 해운시황은 무자비한 완전경쟁으로 간다

2014. 6. 19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P3 무산, Maersk는 독자생존의 길로 간다

P3 서비스 무산에 실망하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A.P Moller Maersk 주가는 8% 하락 이후 다시 2.5% 반등했으며, Evergreen을 비롯한 경쟁선사들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A.P. Moller Maersk는 P3 서비스가 출범한다 해도 P3 내에서 독자성과 차별성은 유지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A.P Moller Maersk는 다음 행보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다음 행보란 2만TEU급이 넘어가는 컨테이너선 발주를 말한다. P3 무산으로 Maersk는 시장의 균형을 위한 노력보다는 차별적인 성장력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다. Maersk는 메가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해 중고선 매각 속도를 높이는 것도 병행할 것이다.

P3 Network 무산을 가장 반기는 집단은 누구일까? 당연히 선주의 고객인 화주와 용선주이다. 화주와 용선주야말로 Eco-ship을 가장 원하는 이들이다. 이제 말 빠른 Eco-ship 투자를 단행하는 선사만이 고객의 선택 속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고객들의 요청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Eco-ship 투자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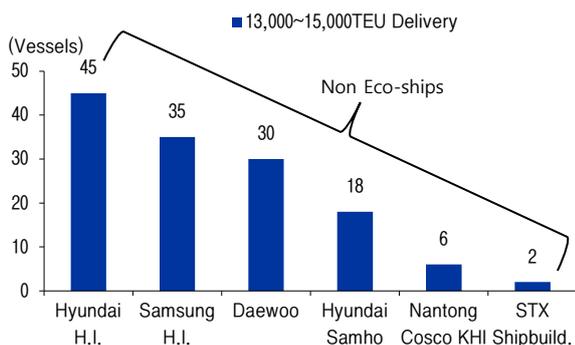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수주경쟁,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앞서있다

P3 Network 무산으로 해운시황은 이제 무자비한 완전경쟁으로 들어섰다. '연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험난한 해운시황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해운업에서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 화주와 용선주들이 선사들의 담합과 동맹을 용인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선사들은 각자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P3 무산을 계기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구주노선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이제 18,000TEU급을 넘어 2만TEU급 이상으로 빠르게 대체되어 갈 것이다. 기존 13,000TEU급 선박들은 파나마운하가 확장되지 않는 한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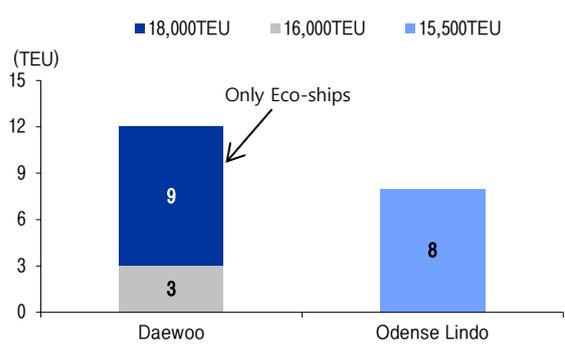
2만TEU급 이상 수주경쟁에서 가장 앞선 조선업체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다. 16,000TEU급 이상을 건조한 경험은 대우조선해양만이 갖고 있다. 또한 Maersk는 자회사였던 Odense Steel Shipyard를 해체하면서까지 18,000TEU급 건조 조선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한 신의 한 수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림1] Containership Deliveries from 13,000 to 15,000 TEU Class



자료: Clarkson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Containership Deliveries over 15,000TEU Class



자료: Clarkson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